

‘탄핵심판 대리인’ 국회 송두환·이광범 vs 尹 김홍일·윤갑근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17명 규모로 꾸려
尹측, 현재 출신 변호인단 중심으로 준비...치열한 다툼 예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인 27일을 앞두고 국회가 대규모 대리인단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 측도 본격적으로 대리인단 구성을 추진하면서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7명 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대표로 변호사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임했다.

김 전 재판관(사법연수원 9기)은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소신이 뚜렷한 것으로 유명하다. 재판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관여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참여자들이 국헌 문란 폭동을 했다는 이유로 내란죄로 처벌된 ‘1980년 법정’과 그 이후 진실이 밝혀지면서 무자비한 진압에 관여한 전두환 신군부 등 핵심 책임자들이 내란죄로 처벌받게 된 과정을 다룬 저술이 담긴 고회 기념 논문집이 2022년 나오기도 했다.

송 전 위원장(연수원 12기)도 헌법재판관 출신이다. 대표적 진보 성향 법조인인 그는 판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냈고 2003년에는 대북송금 의혹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다.

이광범(연수원 13기) 변호사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장, 인사실장, 사법정책실장 등 요직을 거친 ‘엘리트 법관’ 출신으로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이며, 2012년에는 특별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했다.

대리인단 실무 총괄은 현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김진한 변호사가 맡았다. 주요 서면 작성과 변론 등을 도맡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대진표는 법조계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현재 출신 중심으로 대리인단 구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 측에서 먼저 준비를 완료한 모양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지는 미지수다.

일단 수사 대응의 경우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 과거 인연이 있는 법조인이나 검사 출신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김 전 위원장(연수원 15기)은 강력통 검사로 출발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강력·특수통’이다. 윤 전 고검장(연수원 19기)도 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이어 3차장으로 2년간 재임해 특별수사에 정통한 인사로 평가된다.

현재 탄핵심판 대응에 참여할 법조인 명단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현재 출신을 포함해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동기로 ‘40년 지기’이자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연수원 15기)는 변호인단이나 대리인단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외곽에서 지원하고 있다. 일단 현재 변호인단-대리인단의 대외 장구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에 법률비서관으로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채 비서관(연수원 36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형사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덕수, 내란 특검법 공포하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당장과 박범계, 서영교 부단장 등 소속 의원들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여야정 국정협의체 참여...“국회의장 제안 수용”

구성·의제 세부 사안 ‘진통’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안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우 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자 등 ‘4두 체제’가 중심이 돼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합의를 끌어내는 기구로 작동할 전망이다.

우선 협의체 구성과 관련, ‘한덕수·우원식·권성동·이재명’ 체제와 ‘한덕수·우원식·권성동·박찬대’ 체제를 두고 물밑 기 싸움이 오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협의체를 통해 입법 등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국 수습 등 보다 거시적인 논의를 위해 당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우 의장은 협의체 ‘킵오프’ 때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되, 추후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운영 과정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멤버로 들어가는 일종의 중재안을 양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협의체의 빠른 구성을 위한 중재안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지만 협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다.

의제 문제도 협의체 가동의 변수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주도권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입장차가 뚜렷한 현안이 많아서다.

국민의힘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과 함께 현재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을, 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 요구 및 추가경정예산 연초 편성, ‘내란 특검법’ 등의 공포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국민의힘은 추경 조기 편성 및 내란 특검법 등엔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새 장관 임명에는 부정적이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문제도 협의체의 순항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미루거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라, 협의체가 출발하자마자 파행을 맞을 가능성도 있

다. 하지만 일단 협의체만 가동된다면 연내 민생 법안 처리 등 성과가 차례로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비공개 회동을 통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민생 법안 70여건을 재추진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불법 사채 금지법, 중소기업·소상공인·지역일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관련 법안 등이 거론된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를 한 양곡관리법과 국회중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우 의장이 제안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에 여야 의원 외교단 파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의정실 관계자는 “협의체 구성 합의만 되면 금명간 협의체를 띄울 수 있다”면서 “당장 26~27일 개 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최대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법원 등 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

이재명 대표 재판 내년으로 연기

광주법원을 포함한 전국 법원이 23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한두 차례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도 쉬게 된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7일 재개된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가 끝나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지난 18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함에 따라 본격적인 2심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대장동 사태의 ‘분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내달 6일 재개된다.

2006년 도입된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쉬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 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나주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사건과 광주구 유흥업소 보복살인 사건 선고재판 등은 휴정기임에도 광주법원에서 23일과 24일 잇따라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칙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